

문화혁명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李 泰 旭

— 목 차 —

- I. 서언
- II. 경제개혁의 전개과정
- III. 중국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IV. 개혁의 성과와 한계성

I. 서 언

중국은 1949년 10월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1949-52년 사이 경제부흥기를 마치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3-57)동안 토지개혁과 함께 농업집단화를 실시했으며 공업부문에서는 '당의 과도노선'을 발표하여 신민주주의 아래 경제구조를 개편하였다. 그 이후 1955년부터는 본격적인 국유화 조치가 시작되어 사유제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원배분의 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완전전환되면서 一國社會主義論에 입각한 自力更生原則을 공업화 전략으로 삼아 대외적으로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8년 이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진해왔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특히 1차 5개년 계획기간이 지나면서 농업의 회

* 이 연구는 1992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금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생 아래 공업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모형을 모델로 한 '대약진 운동'(1958 - 1960)을 추진하였지만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중국경제에서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약진 운동'(1958-60)을 실시는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하자는 운동이었으나 단시일내 주요 농공품 생산을 증가시키자는 무리한 계획이 오히려 경제혼란만 야기함으로써 실패하였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제조정기를 거치면서 중국 내에서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唯生産力論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자들과 唯生産關係論을 주장하면서 사상혁명과 계급투쟁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우는 혁명론자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前者인 유생산력론자들은 走資派라 하여 수정주의자로 비판을 받게 되고 1966년 이후 문화혁명기(1966-76)를 맞아 숙청되게 된다. 이 기간 중 즉, 1960년대 후반에 중국경제는 거의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는 마이너스(負)의 성장을 초래하고 개인당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문화혁명이 다소 수그러들어 실용주의자들이 복권되고, 4차 5개년계획(1971-75)이 추진된 결과 경제가 다소 호조를 띄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대담한 문호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수출입公社가 설립되었다. 1973년 시작된 석유과동에 따라 중국은 석유수출을 통해 외환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6년 모택동 사망 이후 문화혁명의 잔존세력인 '4人幫'은 경제조정정책을 비판하면서 모택동주의로의 복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1978년 12월에 열린 제11기 3中全會에서는 대약진기와 문화혁명기에 나타난 모택동주의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국가목표를 경제발전에 두고 이를 위한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1978년 이후 개혁초기에는 생산력발전이 중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면서 농촌경제 개혁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1984년 당 제12기 3中全會에서는

계획적 상품경제이론이 제기되면서 개혁은 공업부문을 우선하여 금융, 재정, 상업 등의 전범위로 확대되었다. 1987년 10월 제13기 全大會(전국대표자 회의)에서는 경제분야에서만 아니라 정치, 교육, 기술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개혁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은 시장이 여전히 국가 관할 아래 있으면서 기업의 길잡이 노릇(guide)을 해야한다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체제'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여 시장을 여전히 국가계획의 보조적 역할로서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위론은 1992년 10월 개최된 제14기 黨大會(중국공산당전체회의), 그리고 1993년 3월 제8기 全人大(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기하면서 계획과 시장을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책결정은 계획경제체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기능을 보완적 위치에 두고 있던 기존 헌법체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14기 全大會에서 기존 헌법규정(헌법15조)을 새로운 정책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은 과거 계획경제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社會主義所有制를 기본전제로 하는 가운데서의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의 경제정책에서도 1978년 이후 체제개혁과 함께 개방정책이 천명된 이후 경제개방의 공간적 확대, 무역의 급속한 증대, 대규모 외자도입, 인적 교류의 증대 등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개혁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꾸준히 개혁과 개방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중국경제는 1978년을 기점으로 하여 오늘날까지- 다소 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국역사를 통해 보기드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이제 後發中進國으로 발돋움을 시작하면서, 1990년 현재 개인당 소득은 비록 1990년 현재 \$370에 불과하지만, 12억이라는 인구와 거대한 자원을 가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86년 겨우 17.3% 이던 무역의존도는 1990년도에 이르러 31.6%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서방선진국의 오랜 경기침체,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권 특히 구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경제개혁의 어려움과같은 세계경제권의 침체와는 달리 199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인 9%를 훨씬 초과하는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여타 세계 각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활발하고 동태적인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반영한다. 무역수지 면에서도 1990년에는 87억불, 1991년에는 8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991년 현재 40억불에 달하는 동사회주의 경제권에서는 하나의 기적적인 경제 성공사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면 이러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과연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조치가 순조롭기만 하였는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한 중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등의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경제 성공사례의 원인과 그 발전의 한계성을 밝히면서 동시에 정치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중국경제 고유의 성장모형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경제개혁과 개방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중국경제 발전모형의 의미를 음미한 후 끝으로 중국 경제개혁의 성과와 한계성을 밝히면서 그 발전의 전망을 해볼 것이다.

II. 경제개혁의 전개과정

1. 농업개혁

중국경제의 개혁은 1978년 당 제11기 3中全会에서부터 시작하여 1984년 말까지 제1단계로 우선 농업부문에서 집단적 그리고 약진적 농업정책 대신, 조정적이고 집단주의를 완화하는 농업정책과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개혁조치로부터 시작하였다.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1956년 공업부문에서는 이미 全民所有制 및 集體所有制의 두가지 형태만 존재하는 생산재에 대한 社會主義化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며 동시에 농업부문에서도 1950년대 초기에 시작한 사회주의 개조에 따라 1956년에는 대규모 생산 합작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병운동이 진행되면서 人民公社化 작업이 진행되어 불과 2-3개월 만에 전국 농가의 98.2%가 인민공사회되는 '政社一體'로 국가행정기관과 집체경제의 일체화되었다.¹⁾

人民公社는 과거 농업생산합작사에서 일부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개념까지 소멸시켜 公社가 모든 생산재들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독점지배하고 그리고 국가의 지령에 따라 생산·분배·소비를 계획하였다. 노동력도 군대편제를 모방하여 직접 통제하였으며, 분배에 있어서는 평균주의 방식에 따라 국가에 조세, 집체적립기금 등을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중에서 20-30%를 임금형식으로 지불하고 70-80%는 평균적으로 분배하였다.

이와같이 국가가 파종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직접 통제하고 생산물은 지령성 계획에 의해 국가가 독립적으로 수매하였으며 가격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농업관리제도였다. 따라서 공동소유, 생산, 분배의 집단화

1) 안충영(1993.3), pp.20-21.

에 따른 농민들의 생산의욕상실, 自力更生原則에 따른 모든 불자의 가능한 자급자족, 농산물 수매의 저가정책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켜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특히 60년초 급격히 떨어진 생산실적을 <표 1>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표 1> 농산물 생산 실적

(단위 : 만톤)

년	도	식	량	면	화
1949		11,318		44.4	
1952		16,392		130.4	
1957		19,505		164.0	
1960		14,350		106.3	
1962		16,000		75.0	
1965		19,453		209.8	
1970		23,996		227.7	
1975		28,453		238.1	
1980		32,056		270.7	
1985		37,911		414.7	
1990		40,775		378.8	

자료 : 中國統計年鑑, 1990.

그리하여 1957-1977년 사이 계획경제 아래서 농업생산력 증가율은 연평균 2.2%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농업부문은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중국경제에서 농업부문은 매우 중요한 산업부문이다. 그 중요성은 아래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²⁾ 중국인구는 세계인구의 약 22%인데 비하여 세계 경작면적에서는 7%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의 침체는 중국경제에 있어서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1978년 제11기 3中全會 이후 현재까지 농업개혁은 2단계를 거치고 있다. 첫째 단계는 1984년 말까지로 농업생산 책임제가 도입되면서 농민과 집단적 생산체제가 갖는 관계에서 큰 변화를 이루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 개혁은 초점은 1) 토지소유와 사용권의

2) Jiahe Zhao(趙家和) (1990.9).

분리로 농업생산책임제를 채택한 점 2) 人民公社를 점차 해체시키면서 1982년 12월 全人大 제5기 5차 회의에서는 신헌법 9조에서 人民公社의 행정기능을 폐지하고 향(鄉)정부를 설립하여 맡게 한 점 3)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을 인상시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소득수준을 제고시킨 점 4) 유통체제도 개혁하여 비계획 수매 농산품에 대해서는 국영상점, 집체상점 이외에 개인의 사적 유통을 허용하고 省間の 유통제한까지도 철폐한 점에 있다.

이리하여 1984년 말 전농가의 98%에 해당하는 약 1809만 가구가 농업생산책임제에 따른 농업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따라 양곡생산에 있어서 처음으로 총 약 4억톤, 개인당 400Kg 수준의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다.³⁾

농업개혁의 둘째 단계는 1985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농촌지역 산업구조를 재조정하고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민과 국가간 관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 주요정책은 1) 농지를 개별농가에게 15년간의 계약형식으로 임대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촌민위원회가 갖고 사용권은 농가에 귀속한 것과 과거 국가가 내리던 지령성 계획을 취소하고 국가가 개별농가와 생산량을 수매하는 계약체도로 전환한것. 그리고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국유토지와 집체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첫 번째이고⁴⁾ 2)농업세를 과거 현물세에서 현금납부로 전환하면서 농촌경제를 상품경제로 더욱 발전시켰으며 농민의 직업과 거주이전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도시지역으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향진기업, 외자기업 그리고 개체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3)농산물 판매가격 및 유통체계에서도 큰 개혁을 단행하여 1985년에는 지령성 계획에 의한 수매제가 폐지되고 계약체도로 변하면서 계약가격

3) Wu, Hongguang(1991), p.46.

4) 안충영 (1993.3), p.46.

은 인상되고 식량의 시장유통비율도 높아져서 1978년에는 全無이던 것이 1989년에는 17.3%까지 높아졌다.⁵⁾

〈표 2〉 식량의 국가수매와 시장판매 추이 (단위: 만톤, %)

년	도	총 판 매 량	국가수매비율	시장판매비율
1978		5,073	100.0	0.0
1980		6,129	93.1	6.9
1985		10,763	84.2	15.8
1989		12,138	82.7	17.3

자료: 農業經濟, 북경: 中華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2, 4, p.22

이와같은 개혁의 결과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농산물 생산액이 1978년 1,397억원에서 1989년 6,535억원으로 4.6배가 증가하고 연평균증가율은 15.1%에 달했다.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1987년 4,756억원으로서 1985년에 비해 71.9%가 증가했다. 그리고 농민의 생활수준은 개혁 이전 개인당 소득이 1978년 134원이던 것이 1989년에는 601.5원으로 증가하여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⁶⁾

2. 기업개혁

중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생산주체인 기업에 대한 개혁에 있었다. 과거 중국경제의 경직성 특히 생산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은 1984년부터 기업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즉, 1984년 10월에 열린 제12기 3중全會上에서 “경제구조의 개혁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채택된 후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된다. 이 결정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과 공

5) 안충영(1993.3), p.34, <표3-3> 참조.

6) Wu Hongguang (1991), p.47.

적소유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은 시장원칙을 도입하는 “계획적 상품경제” 모형을 제시하게 된다.

중국의 기업개혁은 所有制의 導入과 企業經營方式의 轉換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所有制 導入을 보면 개혁 이전에는 개인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집단기업의 비중도 그다지 크지 않아 국영기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개혁을 통하여 全人民, 集團, 私營 및 三資企業으로 구성된 다종소유제로 구조조정을 이루게 된다.⁷⁾

더우기 1984년 7월에는 중국 최초의 주식회사인 북경의 ‘천교백화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주식제 기업은 그 이후 광주, 상해, 심양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 이후 1992년 1월 이전 3,200여개의 주식제 기업이 허용되었다.⁸⁾ 정부간섭으로부터 이탈,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자체자금조달, 근로자의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의 가능성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기업관리 경영방식에서 과거 개혁 이전 기업들은 소유자가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서 생산, 판매가 완전히 정부 계획에 의해 통제되었고, 자금 및 인력 역시 국가 계획에 의해서 조달되는 단순한 하나의 생산단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개혁에 따라 기업의 자주권이 확대되고 세금납부제도 등에 있어서도 개혁정책이 시행되었다. 즉 물질적 유인제도가 기업경영에 도입된 것이다. 즉 기업경영 책임제와 기업 임대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게 되는데, 국영대기업은 경영책임제(Contracted Management System), 소형기업은 임대제를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특히 1988년 2월 ‘전민소유제 기업의 경영책임제에 대한 임시규정’을 제정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원칙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경영책임제는 급속히 확

7) 김균(1990), p.130.

8) 안충영(1993), p.61.

대되어 1988년에는 95%로 확대되었다.

또한 공장장책임제(Manager Responsibility System)를 도입하여 전문경영인인 공장장을 대표로 하여 경영구조, 인사권, 자금사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과거 이념위주의 경영체제에서 물질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요인을 도입하게 된다. 1988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고 손실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하여 왔으므로 세금의 개념이라는 것이 거의 희박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에 “국영기업 이윤유보 시행규정”에서 생산발전기금, 복지기금, 장려기금, 예비비 등 이윤유보를 업종별로 다양화 한 다음, 1983년에는 “국영기업에 대한 이윤유보제의 조세제도 변경 시행규정”(4월), 그리고 “제2단계 이윤유보제의 조세제도 변경 시행규정”(9월)을 발표하여 대부분 국영기업의 이윤을 소득세와 조절세 형식으로 징수하고 납세 후 이윤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1987년 하반기부터는 조절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조세와 이윤의 분리제를 채택하여 국가와 기업의 회계일치에서 오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⁹⁾

3. 가격개혁

개혁이전 중국은 가격의 책정이 국가에 의해 계획가격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오랜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가격이 물자의 수급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시장의 주요한 가격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큰 왜곡이 초래되어지곤 했다. 그러나

9) 국가와 기업의 회계일치 현상을 “한술밥” 현상이라고 표현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안충영(1933), pp.51-54.

개혁 이후 가격이 자원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관리 기능을 대폭 지방정부와 기업에 이양하면서 가격체계를 변화시켜 오고 있다.¹⁰⁾

가격체제도 다양하여 첫째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내구재, 예를 들어 옷, 자전거, 재봉틀, 시계 등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삼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둘째는 이중가격체제로서 주요하고 희소한 원자재, 에너지원, 그리고 그 자원의 생산물 등은 국가의 계획가격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잉여분에 대해서는 고객과 협상거래가 가능하며 이 협상가격이 정부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격제도로해서 부정부패도 유발되기도 한다. 세째는 정부지정가로서 국가定價인데 기업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생과 관련된 필수품의 소비자 가격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체제는 낭비적인 측면과 비효율적 보조금 문제 등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과거의 생각을 여전히 갖게 하는 등의 문제를 지닌 가격체계이다.¹¹⁾

이러한 여러가지 가격형성과정과 가격체제는 중국에서 상품과 물자를 그 용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자의 중요성에 따라 一類物資(통제물자), 二類物資(部管물자), 三類物資(지방관리물자)로 나누고, 상품도 중요성에 따라 一類, 二類, 三類 상품으로 나누어 계획상품, 비계획상품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나 가격결정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0) D.H. Perkins(1988), pp.611-21.

11) 趙家和 (1990.9), p.94.

4. 대외개방

중국은 전통적으로 自力更生原則에 따라 경제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개혁이후 대외 개방노선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개방이 또한 改革思考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노선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도시 기업부문의 개혁에서 획기적 효과를 초래한 것도 바로 이 대외 개방정책이다. 개방정책은 실제로 다른 개혁부문보다 먼저 실시되었다. 1978년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실용주의 노선을 주창하면서 대외무역확대, 外資 및 技術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대외경제관계를 확충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을 하였다. 종래 중국의 대외무역은 중앙의 대외무역부가 관장하고 그 산하기관으로 대외무역업총공사가 전담하였으나 개혁 이후는 지방, 기업으로 업무를 점차 이양했다. 이와함께 국내산업의 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서방권과의 교역확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무역액(통관기준)을 보면 1978년 206억불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1,357억불로 6배 이상 신장되었고 공산품 수출비중이 1982년 55%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77.5%로 급격히 증가되어 1991년 무역흑자가 81억불에 달하고 있다.¹²⁾ 1979년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공포한 이후 각종 외자도입법을 정비하고 1980년에는 광동성의 심천, 주해, 그리고 복건성의 하문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이후 계속 외국인 투자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면서 개방을 확대하여 왔다. 즉 1984년부터는 기존의 경제특구 외에 연안 14개 도시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1985년에는 長江三角洲 등 3개의 三角洲지역을 연해 경제개방구로 지정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省으로 승격된 海南島 전체를

12) EIU Counting Report No. 3, 1992.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그 이후 내륙지역으로도 개방화가 확대되어 1992년 6월에는 長江유역 28개 도시와 8개 현을 개방, 외국자본과 기술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¹³⁾

이리하여 중국개방의 결과, 무역액은 1980년과 1990년 사이 3배가 늘어났고, 1979년과 1990년 사이 유치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약기준으로 390억불에 달한다. 차관도 1979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1988년 외채총액이 400억불에 달한다.¹⁴⁾ 현재는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을 확정하고 무역관계 제도개혁을 시도하면서 GATT 가입의 준비까지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¹⁵⁾

III. 중국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의미¹⁶⁾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의 군사대결과 냉전체제가 화해와 협력의 체제로 전환되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동구나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세계의 관심 초점은 군사안보보다 경제발전 내지 협력에 더욱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이미 경제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그 개혁과 개방의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였다. 따라서 동구와 구소련의 붕괴라는 외부적인 충격을 중국은 오히려 더욱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노선을 택하는데 자극적인 요인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동구나 구소련의 붕괴에서 얻은 교훈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

13) 김수용(1992), pp.161-162.

14) 김수용(1992), p.174.

15)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의 GATT가입:문제점과 전망”, 1993.4. 주요국제분석.

16) 중국경제발전모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은 이홍영 교수 논문 참조 (Lee Hong Yung(1992)).

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개방은 더욱 확대하며, 경제개혁도 확고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국내 정치적, 사회적 조건은 사회주의 붕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정부 아래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추구하여야 할 진로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핵심지도층은 기술관료계층들로서 새로운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전문인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보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전문인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사고는 여전히 보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현실적 문제는 경제개혁과 개방의 정도 내지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한편에서는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화 없이 경제개혁의 한계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도 있으며, 이 두 주장 사이에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강력한 정부(Hard State)아래 작용하는 자유로운 경제(Soft Economy)가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¹⁷⁾ 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사회주의의 이점을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시장경제에 따른 부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치적 권위가 시장경제의 이점을 도입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점진적 경제개혁을 통한 정치적 개혁과 시장경제화로 전환해 간다는 것이다.

이 신권위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보수파와는 달리 정치적 지도자를 꼭 노동자 계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17) Lee Hong Yung(1992) 참조.

전문지식계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며 정치적 이념에 얽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같은 사고를 중국 지도층에 소개하게 된 배경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즉 한국, 대만 등 강력한 정부아래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한 경험에서 착안하였다고 한다.

1987년 4월 조자양이 등소평과의 대답에서 후진국의 현대화 과정은 단계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강력한 정부 주도 아래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등소평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구소련은 바로 이상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하다 붕괴하였다고 믿고 사회주의 변화과정은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천안문 사태 이후 新保守主義者들은 현실주의(realism)와 합리주의(rationalism)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현실주의란 중국의 현실 여건에 맞는 적절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지칭하고 합리주의란 강력한 정부 주도 아래 경험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공산주의(Communism)는 '후진국의 병'이며 사회주의(Socialism)는 강력한 개발주도 정부와 시장경제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체제라고 했다.

중국은 앞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즉 신권위주의에 따른 점진적 개혁론, 다시말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원칙을 점차 도입하는 장기적인 접근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현재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다.

IV. 改革의 成果와 限界性

1978년 이후 경제개혁 실시 결과 중국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 대외개방 및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실용주의 노선

에 따른 점진적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경제개혁 이후의 경제성장을, 대외무역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획기적 변화의 폭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중국의 경제개방 전후의 경제적 성과

경제성장율(연평균)	1952-77	5.5%	1978-91	8.6%
1인당 국민소득	1978년	217불	1991년	320불
무역액(통관기준)	1978년	206억불	1991년	1,357억불
공산품 수출비중	1982년	55.0%	1991년	77.5%

자료: 안충영 p.8 재인용 (World Bank, China Dept.)

<표 3>에서 보듯이 개혁 이후 성장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992 년도의 성장율은 12%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액도 급증하여 이미 중국은 무역의존도가 30%이상을 넘는 개방경제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 공산품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1991년에는 77.5%라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발전을 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1990년에 이미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91년말 현재 외환 보유고가 400억불에 달한다.

<표 4> 중국의 무역수지 (단 위 : 억 불)

년 도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수 출	181.2	273.5	475.2	525.4	620.9	719.1
수 입	200.0	422.5	522.8	591.4	533.5	637.9
무역수지	-19.0	-149.0	-77.0	-66.0	87.5	81.2

자료: 중국무역경제연감, 1991

산업과 고용구조의 면에서도 다소의 고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아직도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 제조업 내지 서비스 부문으로 고용구조가 점차 변하고 있다. 그리고 2차산업 중 중공업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 육성의 결과 현재 50:50의 비율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중국산업 및 고용구조

(단 위 : %)

	산 업 구 조		고 용 구 조	
	1978	1990	1978	1990
1차 산업	28.4	27.5	70.5	60.0
2차 산업 (경공업) (중공업)	48.6 (43.1) (56.9)	45.8 (49.5) (50.0)	17.4	21.4
3차 산업 (건설업) (수송업) (상업)	23.0 (4.1) (3.9) (9.8)	27.2 (5.8) (4.9) (9.5)	12.1	18.6

자료: “七.五” 时期 国民经済사회발전개요, p.177(안충영, 1993, p.15)

이같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성과외에 부문별 개혁의 성과를 간략히 보면 먼저 농업부문에서는 (1)생산성 향상, (2)거주제한 철폐에 따른 노동력 이전, (3)농가소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1984년 이후 정부수매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낮아 생산의욕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둘째, 농업수리시설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과 시설 및 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토지사용제를 수반하지 않은 임대제 아래 농가생산책임제는 토양의 질적저하라는 현상을 가져온다.

기업개혁의 성과가 중국경제발전의 주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살핀 바 있다. 중국의 기업은 1978-1990년 사이 물가상승율을 제외한 실질성장율이 연평균 12%에 이를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경공업의 비율도 증대되고 노동자의 실물생산성도 크게 높아졌음을 <표 6>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대형국영기업의 관리에서 보면 경제적 비효율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Janos Kornai는 'Soft Budget' 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재정보조지원이 579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또한 지역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도 격심한 소득격차가를 유발되고 있는데 전문 지식인이 국영기업체나 또는 교육계통에서 받는 봉급보다 상인, 노상매점 또는 관광안내 같은 서비스업계에서의 소득이 월등히 높아 人力資源 이용에도 큰 왜곡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단 위	1978	1980	1985	1990
평로강제련	톤/인.년	497.0	569.0	490.0	600.0
원탄	"	0.9	0.9	0.9	1.2
시멘트	"	245.0	269.0	254.0	261.0
제지	"	14.3	14.7	19.8	17.1
자전거	대/인.년	237.0	298.0	302.0	220.0
재봉틀	"	152.0	164.0	195.0	190.0
시계	"	494.0	514.0	575.0	867.0
합성세제	톤/인.년	25.4	30.2	56.5	82.9

자료: 『중국경제연감』, 북경, 1991 (안충영, 1993. p.63 재인용)

가격개혁에서도 시장조절가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1978년에는 소비재 부문에서 3%, 농산물 부문에서 5.6%이던 것이 1990년에는 소비재 부문에서 53.1%, 농산물 시장에서는 52.2%, 그리고 생산재 부문에서는 36.8%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의 가격기능을 점차 도입하고는 있지만 아직 복잡한 가격체계에 따른 산업부문간의 애로사항 및 유통과정의 왜곡이 심한 편이다. 즉 산업간 불균형, 국가가격 결정방식의 문제점, 시장유통구조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라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은 1978년 이후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래 처음에는 상품

생산과 교환을 인정하였고, 다음에는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를 추구하고, 계속하여 계획과 시장의 내재적 일치를 거쳐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단계적이며 실험적인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따른 제도는 도입되고 있지만 경제행위의 당사자인 국민의 의식개혁의 요소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와 국민의 의식개혁이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중국 통계국, 중국통계연간, 1990.
2. 趙家和(Jiahe Zhao), "The Prospects of the Chinese Economic Reform," 共產圈經濟 (1990.9), 産業研究院.
3. 安忠榮, 중국의 시장경제화와 성과, 국민경제교육연구소.
4. Wu Hongguang, "The Practice of China's Economic Reform," Economic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ystem & Information(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5. 金均, "중국경제개발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현대중국과 북한40년(II), 서진영편,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32.
6. D.H. Perkins, "Reforming China's Economic Syste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8.
7. EIU Counting Report, China, No.3. 1992.
8. Lee Hong Yung, "Socio-Political Aspects of Sino-Korean Economic Relation: A Linkage Politics," A Paper Presented for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Emerging Pattern of Foreign Investment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May 1-2, 1992.(A Draft Paper)
9. 金秀勇,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중경제협력의 발전방향", 동아연구, 제25집(1992.1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